

다노우에 시다레자쿠라(올벚나무)

다노우에 관음당 경내에 있는 올벚나무 시다레자쿠라는 그 종류가 '스게의 에도히간'과 동일하다.

가지가 가늘게 늘어지는 점만 달라서 일명 '이토자쿠라'라고도 한다.

높이 약 17m, 눈높이 둘레 4.3m, 가지길이 약 17m의 장미과 거목이다.

다노우에 지적(地籍) 주변에는 이런 종류의 거목이 많이 식생하고 있는데, 이 지정목은 수세가 우량하고 생육도 좋으며, 마을 내에서 가장 큰 거목이다.

"저속일우(岨俗一隅)"에 '..당 앞에 벚나무 거목이 있는데, 이즈음(음력 3월 17일) 대부분이 꽃을 피운다'고 적혀 있으며, 그 시대에 '거목'이었던 것을 보면 수령은 수백 년에 이르는 고목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.

모양이 단아하고 아름다운 이 지정목이 연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 계절에는 옆 초가지붕 사당과 어우러져 더욱 장관을 이룬다.

'기소무라 문화재 탐방'

(1986.3.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)에서